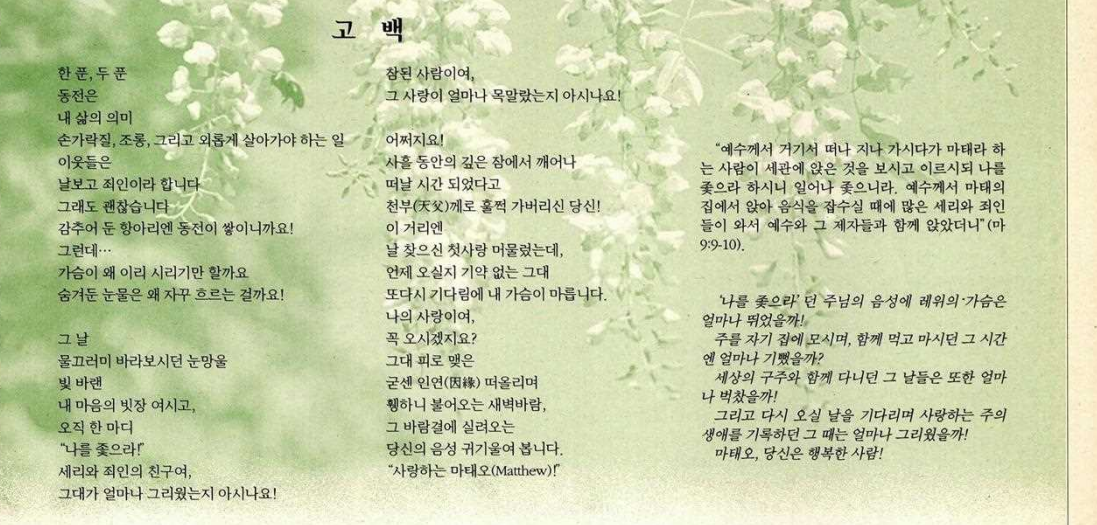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원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경원 편집국장: 이형수



고백

한 톨, 두 톨
동전은
내 삶의 의미
손가락질, 조롱,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일
이웃들은
날보고 죄인이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추어 둔 향아리엔 중언이 쌓이니까요!
그런데...
가슴이 왜 이리 시리기만 할까요
슬퍼든 눈물은 왜 자주 흐르는 걸까요!

그날
물고래이 바라보시던 눈망울
빛 바랜
내 마음의 빗장 여시고,
오직 한 마디
"나를 쫓으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여,
그대가 얼마나 그러했는지 아니사요!

창된 사함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목말랐는지 아니사요!

어찌되지!
사흘 동안의 잠의 집에서 깨어나
떠날 시간 되었고
천부(天父)께로 훌쩍 가버리신 당신!
이 거리걸에 실려오는
날 찾은 첫사랑 머물렀는데,
언제 오실지 기억 없는 그대
또다시 기다림에 내 가슴이 마릅니다.
나의 사랑이며,
꼭 오셨지요?
그대 피로 맺은
굳센 인연(因緣) 떠올리며
행하니 불어오는 새벽바람,
그 바람결에 실려오는
당신의 음성 귀가들어 옵니다.
"사랑하는 마태오(Matthew)"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 가시다가 마태라 하
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
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마
9:9-10).

"나를 쫓으라"던 주님의 음성에 레위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을까!
주를 자기 집에 모시며,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시간
엔 얼마나 기뻐했을까?
세상의 구주와 함께 다니던 그 날들은 또한 얼마
나 베풀었을까!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주의
생애를 기록하던 그 때는 얼마나 그대되었을까!
마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

2001년도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늘 저녁 찬양 예배시

2001년도 전반기 장학금 선발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오늘(3월11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을 통해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된다. 그 동안 이들은 서류와 시험, 그리고 면접을 거쳐서 선발되었고, 지난 주 금요일(3월2일) 기도원에 실시되는 장학금 수련회에 참가함으로써 최종적인 훈련을 모두 마친 바 있다.

충원장학금 수여 대상자들인 13명의 전역장학생과 129명의 일반장학생들은 예배 전에 미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기 바라며, 성도들은 이들이 진정한 천국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하며 후원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 예배시간에 실시되는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서 이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짐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수요일에 매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인생은 사는 것처럼 죽는다'라고 했인가! 누구든지 지나가는 죽음의 문 앞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고백은 그가 살아왔던 가치관이었다고 본질이며 정체성이다. 존경받던 식당주인이 죽음을 앞두고 혼수상태에서 반복하는 한 마디, "기회를 잃게 썰어라!"라는 말은 그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이익에 몰두해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을 말해줄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과 인생에 대한 평가는 죽음의 문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자신의 부패한 삶을 은연식으로 살아갈수록 중국대 거짓의 사람이었음을 더욱더 자명하게 드러낼 뿐이라는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서른 세 살 인생을 마치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사신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마지막 고백은 그의 모든 생애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된 생애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다! 주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일치된, 즉 하늘 아버지의 손에 철저히 의탁된 삶이었다. 금식으로 굶주리셨던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의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며 허기진 육체를 아버지께 의탁하셨다(마 4:4).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마지막 밤에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며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다(마 26:39). 그리고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시키는 주님의 영혼이 세상의 군왕이나 이들의 세력들에게 굴복되지 않았었던 이유, 심지어 죄에 더럽혀지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언제나 아버지의 손에 의탁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은 세상의 소유를 향해서는 철저히하게 비워졌으며(빌 2:7), 천국의 아버지를 향해서는 배려 넘기셨기 때문이다. 철저히하게 비워져서 아무 것도 없는 주님의 영혼으로 주님의 왕과 악한 마귀가 패배를 얻지 못하였!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고백하길 원한다면, 주님처럼 결코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생애를 살아가길 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처럼 언제나 그대의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의탁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래서 죽음의 문 앞에서 주님처럼 철저히하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 세상이나 인간 관계가 그대의 영혼을 노략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철저히하게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영혼을 관리하시도록 그대의 영혼을 맡겨 드려라!

2001년도 일꾼 선출 계획

장로, 집사, 권사 선출

"내 아들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배 많은 중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1,2).

죽음을 앞 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고는 죽음을 이르는 수많은 신자들을 부름으로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복음의 확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제안하고 있는 대안은 믿음의 계보였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을 게로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해 가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충원교회가 2001년도 일꾼을 선출할 계획을 세웠다. 한남에서 인정하는 신실한 일꾼을 선출하여 몸뚱신 교회를 봉사할 함으로써 교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부흥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다. 주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일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 많은 이들을 향해 복음의 중언으로 살아갈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일꾼 선출에 대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일꾼 선출 계획 - 3월7일(수)
- ② 후보자 선출 의뢰 및 미집 - 3월25일(주일)
- ③ 인사위원회 예비심사 - 3월29일(목)
- ④ 공동의회 개최 - 4월8일(주일)
- ⑤ 당회심사와임시당회 - 4월18일(수)
- ⑥ 후보자 공고 - 4월22일(주일)
- ⑦ 공동의회개회(후표) - 5월6일(주일)
- ⑧ 피택자 확정공고 - 5월13일(주일)
- ⑨ 교육기간 - 5월13일~11월11일
- ⑩ 임직예배 - 11월 중(노회 송인 후)

정기제직회와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정기제직회와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다. 제직들은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

Singing Amid Suffering

(Acts 16:25)

"But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of praise to God, and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During their missionary visit to Philippi, Paul and Silas were seized by some angry business men because they had cast out a demon from a slave girl who was making them much profit by her fortune telling. The masters of this girl forcibly took Paul and Silas before the chief magistrates of the city. They said, "These men are throwing our city into confusion, being Jews, and are proclaiming customs which it is not lawful for us to accept or to observe, being Romans" (vs. 20-21). Judaism was not a prohibited religion but propagating it was regarded as a menace. Paul and Silas were regarded as Jews, since, at this time, the Romans considered Christianity to be a Jewish religion. The crowd and the chief magistrates rose up together against Paul and Silas and had them beaten with rods, many times, and then thrown into prison and chained. And around midnight, what were Paul and Silas doing? Were they crying and having a pity party? Were they obsessed with anger over the injustice done to them? Were they shaking with fear over the danger they were in? Were they so busy caring for themselves that they hadn't time for anything else? Were they praying and singing?

"But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of praise to God, and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v. 25). How can these two men sing at midnight after being severely beaten and imprisoned? How can they praise God in the midst of such a terrible situation? Can you do that? Here Paul and Silas sit in a horrible Roman dungeon with bloody and sore bodies. How can they sing, especially victory songs?

How can you? So many good Christians of today find themselves in similar circumstances of adversity, but they don't sing. Instead, they are depressed and they despair. They doubt and question. They get angry. They get fearful. They fall into self pity. Some even seek lawyers for their defense of innocence. Paul and Silas praised God in their dangerous, dark, and serious situation. They had no earthly hope in this strange place where everybody hated them. But they decided in this situation, at midnight, to praise God.

In a certain sense, their missionary work and witness ended. Their journey to proclaim the Gospel was cut-off. Indeed, up to this time they had proclaimed the Gospel and healed sick people. The result was that they were persecuted, beaten, and thrown into jail. Their purpose stopped, and yet they still praised God, "For this reason, therefore, I requested to see you and to speak with you, for I am wearing this chain for the sake of the hope of Israel" (Acts 28:20). Amen! Paul truly believed that the chains around his feet in this prison were for the hope of Israel. This was Paul's heart. He knew it was going to come. It didn't bother him. He still sang.

Paul and Silas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to them tomorrow. Certainly, considering that the first day entailed severe beatings, perhaps on the second day the Romans would kill them. From the start, they already had big trouble. But they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Nobody told them or advised them. They had no money or authority. But as a believer, whenever Paul experienced trouble or was on trial,

He was always happy. Trials faced with joy result in endurance. "Consider it all joy, my brethren,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Jam. 1:2)! Believers can rejoice in suffering. "So they went on their way from the presence of the Council, rejoicing that they had been considered worthy to suffer shame for His name" (Acts 5:41). Listen to Paul's assurance of joy, "Great is my confidence in you; great is my boasting on your behalf. I am filled with comfort; I am overflowing with joy in all our affliction" (2 Cor. 7:4). Amen! In all affliction believers can rejoice.

It's not just Paul and Silas who must face adversity. In this life we all come to the midnight hour. When that hour comes and all is black, will you sing? When your heart cries out in grief over the death of a loved one, can you sing? When you are falsely accused and lied about, will you sing? When you are persecuted for Christ's sake and severely tempted, can you sing? So many fear the night. So many shout for joy when the sun is shining but sigh when the dark shade of night falls. So many dread what tomorrow may bring. They weep, worry, and wallow in depression. Can you sing at midnight?

My dear friend, can you truly sing at midnight? Do you believe in Jesus? He is alive and on your side! Even when it seems like you're standing in the middle of Sodom and Gomorrah, and the whole world is seeking after the glory of material wealth, and you're the only one taking the cross, you can praise Him. When people laugh and ridicule you because of your lifestyle, can you praise Him for that? Can you praise Him when people give you such a hard time?

Hold to your heart this tune, "I will remember my song in the night; I will meditate with my heart. And my spirit ponders" (Ps. 77:6). When your body is all mingled by blood, your spirit can be fresh. "For this reason I also suffer these things, but I am not ashamed;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I a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until that day" (2 Tim. 2:12). For the Gospel, for this reason, we can stake our faith and find joy. Peter proclaims,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 5:7). Amen! It really matters to God concerning you! Paul also proclaims,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m. 8:28).

Even if the world cuts you off, bruises you, insults you, and persecutes you, as a believer you can sing in any situation. Listen to the words of Psalm 30:4&5, "Singing praise to the Lord, you His godly ones. And give thanks to His holy name. For His anger is but for a moment, His favor is for a lifetime; Weeping may last for the night. But a shout of joy comes in the morning." Your situation may be hard, you may have a lot of religious, political, moral, and spiritual trials ahead, just believe in Jesus Christ. He will be with you. He has all victory! Have eternal hope so that whatever situation you find yourself in, you can praise the Lord and shake the heavenly realm. Loved ones,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all will be well. God is in control! Praise Him always!!!!



김성관 목사

고통 중 찬미하매

(행 16:25)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고난받는 이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를 방문하던 중, 그곳의 성난 상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에게 '점'으로 큰 이익을 주었던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억지로 끌고 그 도시의 관원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의 도리를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행 16:20,21)라며 고발하였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 금지된 종교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전하는 행위를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였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유대 종교로만 생각하였기에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때 두 사람의 관리들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송사하였고 매로 치라 하였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치고 쇠사슬에 묶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물면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당한 일이 억울하여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들이 빠져있는 위험을 보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는데 급급하여,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기도와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까?

고난중에서도

문본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행 16:25)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이 두 사람들이 한밤중에 찬미할 수 있던 말입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피땀이 된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그 무서운 로마 감옥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실의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과 회의에 빠져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기연민에 빠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무죄를 밝히려고 변호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그들의 상황이 위험하고 암울하며 심각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 이상한 곳에서, 세상의 소망이라고 큰 조공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를 향한 바울과 실라의 믿음(1)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선교사역도, 중인의 삶도 끝났습니다. 복음 선포를 한 여행도 이제 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그 결과로 핍박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하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행 28:20) 아멘! 진실로 옥에 갇힌 바울은 그의 발에 매인 쇠사슬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까. 그는 이러한 억압이 올 것을 알았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주를 향한 바울과 실라의 믿음(2)

바울과 실라는 다음날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닥칠지 몰랐습니다. 첫째날 심한 매를 맞은 것을 생각해보면, 둘째날 로마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시작부터 그들은 이미 큰 문제에 봉착했으나 아무도 그들에게 도움의 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련은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 신자들은 고통 중에 기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도대히 앞을 떠나니라"(행 5:41) 자, 바울의 확신이 찬 기쁨에 귀 기울여봅시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고후 7:4)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바울과 실라만 역경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모두 어두운 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임하여 온통 캄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슬픔에 겨워 애통할 때도, 상대가 여러분을 거짓 고소하고 여러분에 대해 거짓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고 싶은 유혹을 당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햇빛이 찬란할 때에는 기쁨의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밤의 어두운 밤의 그림자가 찾아오면 한숨을 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실의 가운데서 슬피 울고 격정하며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밤에도 진정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온 세상이 물질적 부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오직 여러분만이 십자가를 지러는 유일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그들과 달라, 그들이 여러분보다 바울과 실라보다도 여러분은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편 138의 노래에 여러

분의 마음을 고정시켜 보십시오.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시 77:6) 여러분의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생기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시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이처럼 우리는 복음과 믿음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 열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하심이니라"(벧전 5:7)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봄

비록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육보이고, 핍박해도 여러분은 신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4,5절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환경이 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종교가, 정치적·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시련을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십니다.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익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십시오. ■

2001 총현교회 선교사 기도 제목

금주와 다음주는 총현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기도제목들을 소개한다.

선교사들은 1. 단기선교사 2. 단기평신도 선교사 3. 협력선교사 4. 평신도선교사로 구분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보안상 알파벳으로 표기했다

I 단기선교사

1. **정은희** 선교사 (아프리카 R국)

1.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충만하도록
2. 주님이 맡겨주신 수단의 사역(7교회, 성경 학교, 아람어 학교, 젊은이 제자 훈련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잘 감당하고, 각 사역들이 선교사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3. R 사역을 함께하는 단기선교사와 협력선교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되고, 현지인 사역자들과 하나되어 귀한 열매를 맺도록
4. 가족 구원

2. **최유진** 선교사 (아프리카 S국)

1. 국민대학 청년사역 (성경공부 사역과 중보기도사역)
2. 학생들을 중심으로 더욱 강한 중보기도팀이 생기도록
3. 딸 (허주영), 사모님 (홍수정)의 건강을 위해

3. **박태양** 선교사 (필리핀)

1. 세 명의 자매들과 박태양 전도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2. 현지인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현지 거처가 마련되고, 장기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3. 현지의 문화와 관습에 잘 적응하고, 좋은 현지인 협력자를 만나도록
4. 거듭난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도록
5. 총현교회의 말글과대시 선교의 교두보가 구축되도록



II 단기평신도 선교사

1. **권영익** 선교사 (아프리카 R국)

1. 평생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2.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3.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기 원합니다.
4. 계속되어지는 단기 선교사 후임자를 보내 주시길 원합니다.
5. R의 사역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게 하시는 것을 하기 원합니다.
6.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공부하고 전략적으로 쓰여지기 원하는 데 길을 보여 주시고 도움을의 손길들을 허락하소서.
7. 함께 사역 할 믿음의 동역자(아내)를 허락하시고 서로가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날 수 있게 하소서.

2. **최은아** 선교사 (아프리카 R국)

1. 현지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2.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3. 정은희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 권영익 단기 평신도 선교사와 하나되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R본부의 행정 사역과 0000 성경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5. 아람어와 영어의 진보를 위해
6. 기도 후원자들이 꾸준히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3. **권요셉** 선교사 (아프리카 R국)

1. 현지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2.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3. 정은희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 권영익 단기 평신도 선교사와 하나되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고등학교, 대학교 안의 젊은이들 심방 사역과 지방교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5. 아람어와 영어의 진보를 위해
6. 기도 후원자들이 꾸준히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4. **최은희** 선교사 (아프리카 B국)

1. 시야를 넓게 보고 조금씩 하지 않게 하소서.
2. 내 속에 있는 욕심의 정체를 도말하시고 성령에 민감한 자로 기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3.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깊이 사랑하며 그들의 언어를 즐겁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4.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전리 안에서 자유케 하소서.
5. 육체의 연약함, 가족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5. **이도영** 선교사 (스리랑카)

1.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 주소서.
2.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여 감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본부 어린이 영어 사역에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사 예수님을 모셔 들이게 하소서.
4. 귀국한 외선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5. 국내 외국인 선교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6. 우정전도를 위하여: 사이언 할아버지 가정, 단자니 가정, 파라드 가정, 자민더와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7. 헌신된 현지 동역자들을 허락하소서.
8. 사역을 위한 모든 길을 열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소서.

6. **추건희** 선교사 (스리랑카)

1. 매일의 정진, 기도, 성경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
2. 심방, 양육 사역을 위해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3. 스리랑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4. 언어 진보를 위해서.
5. 믿음과 신력을 갖춘 헌신된 동역자들을 위해서.
6. 귀국한 외선부 지체들의 영적 성장과 이들 사이에 유대감 형성, 동역자 의식, 땅가 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 자주 땅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7. 어린이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8. 영적 지도자 발굴, 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이나 타 기관 파송 선교 사역자 파악

4월 8일까지 선교위원회로 등록하도록

교회는 본 교회 성도 중 개인이나 타 선교기관의 파송으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등록을 요망하고 있다. (서식, 아래 참조)

이는 이들을 파악하여 격려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또한 선교사역 중 본교인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 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해외 사역중인 사람은 가족이나 후원(관리)자 중에서 등록을 대신할 수 있다.

교적번호	이름	교구	성별	생년월일	파송기관	지역	지역기간	연락처

13기 LMTC(총회선교훈련원) 훈련과정

평신도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월 3일~6월 23일

교 육 비: 5만원(문화 납부 가능)

단기선교파송 대상국:

아프리카, 몽골, C.I.S, 스리랑카, 베트남, 말라카대시

문 의: 선교위원회(567-9544, gwwj@unitel.co.kr)

LMTC 어학강의

LMTC 교육과정 가운데 '어학훈련과정' 이 다음과

같이 개설됩니다.

시간 / 장소: 매주 토요일 17:30 / 배다니홀

강사: 영어 - 하이니(原語民)

스리랑카어 - 가미니(原語民)

몽골어 - 솃다(原語民)

아람어 - 이성욱 전도사

러시아어 - 송요한 전도사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하나님

조연주 (대학부 4학년)

이번 겨울에 다녀온 수련회에서는 여지껏 다녀온 것과는 또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뒤늦은 대입준비를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련회를 가야 할 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해 갈등하던 중, 대학부 찬양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상처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하셨고, 그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 짓게 되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함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대학부의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2월 5일부터 8일까지 수련회에 부분적으로 참석하였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소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녔의 생애를 중심으로 저녁집회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일평생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았고 그러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의 모습도 보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찬양과 기도의 시간. '내가 널 잘 아노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상처와 죄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한없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참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어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떠올린다.

무엇보다도 이번엔 생각하게 된 것이 있다면 수련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었다. 아침에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준비할 때, 지각을 해서 마음 졸이며 사무실에 들어갈 때, 서툰 일으로써 인해 바쁘고 긴장하고 있을 때,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



어오는 길에나 잠을 청할 때, 문득 나의 앞날을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아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해 마음을 아파할 때, 대학합격으로 기뻐할 때...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싶다.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적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정한다. 그렇기에 더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에게 오 늘도 '내가 널 잘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 번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아주 작다고 여겨지는 일일 지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다윗과 같이 순종의 반응을 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한 대학생의 비애

오 웅진 (대학부 간사)

얼마 전 졸업시즌이었다. 졸업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한 대학생이 4년이라는 대학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도대체 이 과(科)를 왜 다녔지?"

이 실패가 우리나라의 진로지도의 부재 상태를 지적해 주는 한 예이긴 하지만 여기서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 중 수많은 사람이 이 학생과 같은 비애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우리의 목표 설정이 복음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채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보다 더욱 사치스럽게 좀 더 명도에 얻어보자,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많이 가져보자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데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회개하여 의로움에 이르는 데에 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우리의 목표가 영혼을 건지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방인과 똑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복음과 관련된 비전으로 즉시 수정해야 할 때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다간 후 하나님을 뵈며 "참으로 잘 하였습니다" 하시는 그분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졸업한 그 학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초보 선생의 다짐

김민 (대학부 간사)

만약 내 안에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애쓰기보다(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된다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 모르지만 그 고난의 비밀로 나의 몸을 채우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된다면, 이제라도 소심하게나마 감히 예수님을 안다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97년, 군대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만일 제가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서있었다면 믿음의 연단으로 더 크게 성숙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여전히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한 선생님과 같이 성경공부를 하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분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배우며 그 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선생님의 사랑과 섬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 그 선생님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만난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의 기도 덕에 오늘 제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맛보아 일게 되었다면 과장된 칭찬이 될까요?

대학부에서 선배, 조장으로 섬기다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올해는 초보 교사로서 섬기고 있지만 말씀을 접할수록, 영혼들을 대할수록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수록 하나님과 영혼들 앞에서 더욱 겸손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만 바라보던 연약하여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되신 예수님이 함께 두루려 주시길 없이 기뻐합니다. 비록 초보지만 내며 때로 실수하더라도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며 묵묵히 영혼들과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질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 판권

글·그림 김범현

사람의 무력은 강력하니
순수 무력으로
악을 타개하려면
200년째 한 걸음 걸고



사람의 사상은
경이로우니
순수 사상으로
모순을 총식하려면
100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사람의 권세는 두려우니
순수 권세로
이 땅을 개혁하는 것은
불과
50년도 안 걸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 알 세상의 죽음은
더욱 위대한 역성이라,
나 하나를 변화시켜
죽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변화하니
영광의 무도회를 완주해
이웃을 만져주는
순수인의 순수.
설레며 이 순수에 동참하라



2001년 총현체육대회 조직

♡ 팀명: 사랑

- 단 장: 남선우 장로
부 단 장(3~4인): 오정현 장로, 이병욱 장로,
김인관 장로, 최대원 장로
총 무: 김국석 집사(6)

총감독: 김영수 장로(11)

경기별 팀장 및 차장 팀 장(남) 차 장(여)

갯벌잡는 새장	팀 장(남)	차 장(여)
심자거꾸비	윤석민 집사(6)	이현숙 집사(6)
백대리죽구	서대진 집사(6)	정경진 집사(6)
농구	이부영 집사(1)	전옥순 집사(1)
야생동물 놀이	김현진 집사(11)	김민애 집사(11)
피라미드쌓기	이승득 집사(1)	김경숙 집사(1)
장대물고기	이보신 집사(1)	강신순 집사(1)
바람잡는 특종단	민준희 집사(3)	임부자 집사(3)
군중성 놀이	박찬성 집사(11)	홍혜선 집사(11)
줄다리기	김희선 집사(3)	이명희 집사(3)
400m 계주	최경철 집사(3)	손은숙 집사(3)
우물거꾸비 부자대	김수국 집사(1)	이득혜 집사(1)

옹원단원(10-30인) 이경재

전령 구원섭(1), 황진순(1), 최남

강종묵(11), 태명자(11)

♥ 팀명: 충성

단 장: 박인건 장로

부 단 장(3~4인): 최명환 장로, 이갑재 장로,
전홍렬 장로

부 총 무 : 조성은 집사(15)	팀 장(남)	차 장(여)
회 계 : 이연실 집사(7)	윤병식 집사(7)	이경옥 집사(7)
총 감 독 : 정태두 장로(9)	김연태 집사(9)	장남희 집사(9)

어깨동무 릴레이	신용환 집사(7)	백옥순 집사(7)
피라미드쌓기	김수연 집사(15)	노혜경 집사(7)
장애물경기	정영래 집사(9)	김연향 집사(7)
바람잡는 특공대	이성남 집사(7)	이병진 집사(7)
굴렁쇠 릴레이	허 오 집사(15)	김현미 집사(7)
줄다리기	배춘식 집사(13)	김경희 집사(7)

총원단원(10~30인)	박종진(9), 이신동(7), 최준(7), 이명규(15), 조영란(9), 안은(7), 독고정란(15), 정정순(7)
전령	장철규(13), 신철우(7), 박석(7), 정종수(9), 공성연(7), 신정(7)

Abstract

가리키츠에서

**갈릴리홀에서
팀 임직원 전원 참여해야**

이는 예식회의 두 번째 결의이다.

[illegible]

차장, 각 팀 단장들은 16일(금) 금요일집회

교구

교구
교구

한우의 형제사마들은 각 힘으로 나누어 소축하게

본부 임원, 실행위원 및 각 팀 임역원 전원 참여해야

5월 1일 2001 춘천현대체육대를 앞두고 오늘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 기도와 및 경기 설명회로 모이게 된다. 각 본부 임원, 생활위원 및 각 팀의 모든 조치가 완비됨에 따라 실제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경기 설명회에서는 각 종목의 경기개별 및 선수준비사항, 심판 요령 등을 설명하게 된다. 이 모임이 끝나는 각 팀이 모여 구경별인 경기진행에 대해 의논하게 된다. 참석대상은 이하(초·중·고) 춘천현대체육대 소속의 모든 아동을 비롯해 동생원 전원이니

3월 16일(금) 그날지하 회 지하회의 회의 모임에서 그제저 준비 전거

한편, 진행위원회 본부장 및 차장, 분과장 및 차장, 각 팀 단장들은 16일(금) 금요일 집회 후 영아부식에서 모임을 갖고 각 부분별 진행 및 준비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각 팀의 단장 및 구성, 색깔은 다음과 같다

민음팀 / 적색 / 단장 이종석 장로 / 4, 5, 8, 17교구

소방팀 / 창색 / 단장 이 훈 장로 / 2, 10, 12, 14, 1
 사랑팀 / 화색 / 단장 남선옥 장로 / 1, 3, 6, 11교구

충성탐/녹색/단장 박인권 장로/7, 9, 13, 15교구

* 19교구(젊은이 교구)는 당일 진행요원으로 하고, 외선부의 형제자매들은 각 팀으로 나누어 소속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

강 지 나 (유년부 5과5반)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중창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중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희와 선생님께서 중창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아주 기뻐요. 그리고 정빛나, 이진아 언니와 김명화와 함께 4명이 중창을 하게 되었는데 연습시간에는 물론 무대에 설 때도 즐거웠어요.



△ 사진 왼쪽 첫번째가 강지나 어린이

그러면서 저는 점점 찬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또 저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 중창팀은 금요찬양집회, 외선부, 고등부, 동서울노회, 전국 유년주일학교 찬양대회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실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졌어요. 또 외선부의 스리랑카 아저씨·아주머니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선물을 사주셨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첫째 날

교사의 눈으로 본 아이들 세상

박 연 미 (초등부 교사)

2월20일~21일. 오늘은 겨울이면 으레 열리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는 첫날이다. 초등부 교사 2년째. 두 번째 맞는 성경학교를 위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새물결만 느껴진다. 겨울성경학교 개최에매. 짧은 시간인데도 아이들에게는 지루한 시간인가 보다.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을 외면한 채 장난을 치는 아이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사이에 예배는 끝나고 있었다.

예배 후, 만화영화와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용이 상영되었다. 익숙한 이야기인데도 이들의 모습이 사뭇 잔치하리만 하다. 만화를 통해 전달되는 예수님이 아이들에게는 말씀보다 더 흥미로운 모양이다.

영화가 끝날때는 찬송들이 감격적이었다. 지금은 각 반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 성경공부 교재를 펼쳐 들었다. "자, 오늘은..."이라는 말에 유난히 힘이 들어갔다. "오늘은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까? 매우 신경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성경학교인데 평소보다 더 언어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선생님과 교제... 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마음에 새겨질지는 잘 모르다. 단지 10년 쯤 뒤에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금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할 뿐이다.

'사랑의 시간'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밖에서 먹는 음식이 낯선지 끄적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선생님, 이거 꼭 다 먹어야 하나요?"라는 의문적인 눈빛을 받는 사이, 성경학교의 첫째 날 오전은 다 지나가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오후, 성경퀴즈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기다렸지만, 나에게겐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박킴사님께서 슬며시 오셔서 "퀴즈게임 준비, 잘 끝났는지?"라는 말씀을 던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애나하는 서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퀴즈를 푸는 야구경기를 할 거예요." 마이크를 통해 내 목소리가 여러명씩 울렸다. 지금 나를 떠도는 아이들의 눈망울은 분명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보다 더 맑았다. "1루타, 2루타, 아웃!" 한 마디씩 던질 때마다 실망과 기쁨으로 교차되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았다. "흥! 흥!"이라는 내 외침에 환호하는 아이들의 흥분한 목소리에 머리가 아찔했다. 그 모습에 나도 마냥 좋으면서도, 만약 '예수님'이라고 외쳤을 때에도 이만큼의 환호성을 지를까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에 몰려서 예수님을 잊으며 살아간다. 하물며 아이들에게도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내에게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지식 속 하나님"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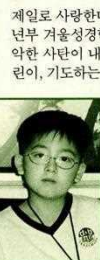
겨울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겨울성경학교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유년부 겨울성경학교를 마치고

변 지 윤 (유년부2과4반)

유년부에 올라와 처음 맞는 겨울성경학교는 정말 재미있고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찬양·율동·게임·만들기·그리기·인형극·특별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느껴서 참 좋았어요. 전도사님 말씀도 재미있었고, 또 맛있는 간식도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여러가지 색깔의 칠흙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 앞에 전시해 놓았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신기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 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했으니가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지요. 나는 이번 유년부 겨울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약한 사탄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시고 항상 예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주 일

나 형 운 (유년부5과3반)

주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주일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가는데 내 친구들 중에는 주일에 교회에 가지않고 놀리는 아이들이 있다. 불쌍하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나는 가서 예수님을 믿지않고 놀리는 사람들을 전도할 것이다.

내외는 그리스도의 편지



언뜻 스치다가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품는다.

인 내

주간충현에 기자로 봉사한지 2개월이 조금 넘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로 했다. 충현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원고청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원고청탁 또한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거기다 2달에 한 번씩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고정란에 글을 써야만 했다.

으~~악! 난 책을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할 뿐더러 글 쓰는 것은 넘 넘 싫어하는데...

초등학교때도 독후감도 언니들이 거의 다 써 주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왜 하필 나요? 차라리 글 잘 쓰면서 봉사할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내 직업의 나라에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가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만뒀야 하는 이유를 생각했지만 그건 내 생각 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함의이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함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시끄러웠던 난 다시 조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대를 해본다. 전혀 익숙하지 못한 글에 보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도록 하신 분.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얼마나 누릴까...

또 주간충현이 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권형일 기자)

